

화엄사 2년 중창불사 회향

부산 화엄사(주지 보혜)가 2년 여의 중창불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생활포교도량으로의 활동에 나섰다. 화엄사는 4월 25일 오전 10시 화엄사 경내에서 중창불사 회향 및 불교대학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중창불사는 2년 여에 걸쳐 대웅전, 극락전, 약사전 등 도량 전방에 걸쳐 보수작업이 진행됐다.

화엄사는 이번 중창불사를 마치고 불교대학 및 신도회 운영, 사회 복지 등 불자들에게 위한 다양한 실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화엄 불교대학에서는 BBS불교방송에서

<금강경>을 강의 중인 활안 스님과 범어사 주승가대학장 흥선 스님이 경전 강의를 이끌며, 주지 보혜 스님이 기초 교리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염불공양회' '사찰음식 및 요리반' '거사림회' '부모모임' 등 다채로운 실행단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혜 스님은 "고지식하고 어려운 불교가 아니라 쉽고 새로운 불교로 다가와, 화엄사 도량 전체를 최대한 활용해 불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051)723-1851 박지원 기자

범어사 3층석탑 본래 모습 찾다

23일 3층석탑 보수 마치고 사리함 봉안식

선해대본산 범어사 3층석탑(보물 제250호)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4월 23일 경내 3층석탑 보수를 마치고 사리함 봉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봉안된 사리함은 가로·세로 29cm, 높이 13.5cm의 도자기로 조성됐다. 사리함 조성·봉안 등 역사적 기록은 동국역경원장 무비 스님과 범어사승가대학장 흥선 스님 등이 감수해 후대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남겼다.

사리함 안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6과와 3층석탑 관련 역사자료 1부, 대중 명단, 소망 및 탑다라니, <반야심경> <광명진언> <육사대명왕진언>



4월 23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3층석탑 사리함 봉안식에서 정여 스님이 사리함을 봉안하고 있다.

치한 마하시수도원에 봉안됐던 사리다.

범어사 3층석탑은 19일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당시 덧칠된 시멘트와 변형된 기단부, 탑을 에워싼 난간 등을 복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체됐다. 범어사와 문화재청은 한 달 여간에 걸쳐 기형적인 기단부와 난간 등을 제거하고, 탑을 해체한 결과, 사리함이 있어야 할 1층 탑신부가 텅 빈 것을 밝혀냈다.

유경석 금정구청 문화공보과장은 "탑 해체 후 봉안된 사리함 안에는 사리 대신 깨진 유리조각과 신문지 뭉치 등으로 채워져 있어 일제의 만행을 짐작케 했다"며 "오늘 부처님 진신사리와 함께 여러 복장물이 봉안되면서 범어사의 새 역사를 남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사하불교련 급식 기금마련 하루차집

부산광역시사하불교연합회(회장 상연, 이하 연합회)가 무료 급식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차집을 열었다.

연합회는 지난 10여 년간 독거노인들과 노숙자에게 무료급식을 꾸준히 이어왔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연합회사무실 및 지하식당에서 150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4월 24일 괴정동 크로바호텔 1층

커피숍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사하구 지역 내 약 500여 대중이 동참했다.

해우 스님(약사주 주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차집을 정례화해 무료급식뿐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051)208-5551 박지원 기자

제26회 연꽃문화제 성료



제26회 연꽃문화제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울동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동련 산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효선은)는 4월 25일 제26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청공원 등대광장 및 옥외공연 일원에서 열린 이번 연꽃문화제는 체험마당 및 트기기와 글

짓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처님나라, 부처님마음, 부모님'을 주제로 이번 대회에서 김이현(초등3, 원오사 어린이회)이 대상, 최은아(초등5, 톨비나어린이회)·신민숙(초6등, 광명사 어린이회) 등 총 25명이 수상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삼독심을 없애자!' '상상력을 펼쳐라: 날말 찾기' '일어버린 부처님 손을 찾아오' '미니월드컵' '탑쌓기' '합장주 만들기' '사경' 등 다양한 놀이마당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051)864-4569 박지원 기자

장애인 놀이공원 관람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남들 눈 의식하지 않고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놀이공원 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는 4월 26일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놀이공원 미월드(대표 김성규)에서 '장애인'과 하나 되는 부산불교'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역 내 장애인 30여 명을 초청해 야외 체험활동과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장애우들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놀이기구를 탑승하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행사는 지역 내 장애인 30여 명을 초청해 야외 체험활동과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장애우들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놀이기구를 탑승하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부산불교련, 천안함 분향소 조문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4월 27일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극락왕생을 빌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연합회) 임원진 스님 20여 명이 부산역광장에 마련된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4월 27일 오후 5시 연합회 임원진 스님들은 부산역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현화와 함께 <반야심경> 봉독 및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정여 스님은 "나라를 지키라는 국

가의 부름을 받았던 젊은 장병들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다"며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가 국방과 재난을 극복하는 힘을 더욱 강화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편 연합회는 위로금을 모연해 유가족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보통이 Sale 시은 불교 선

특가 145,000
☎ 02)2004-8216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순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칠귀의 액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 관음도

가정과 사업장에 꼭 있어야 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며,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이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살명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세상은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造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원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능)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 시작 조심

닥처울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묶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재하는 마음으로도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중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제주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 1의 법구인 금강저를 물에지내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재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집안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금계좌 별도 상담요)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만남이 없는 오늘날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자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계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